

映畫 「Emma」이미지의 衣裳 디자인 研究

朴祥映*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A Study on Fashion Design of the Movie, Emma's Image

-Focusing on the Jane Austen's Emma-

Sang-Young Park* and Kyu-Hwa Cho

M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costume and symbolism of the English novelist Jane Austen's novel 「Emma」 which was produced as a movie in 1996. The novel 「Emma」's periodical background is from 1814 to 1815 in neo-classical age of costume. The English woman's costumes in 1810 were high-waisted empire style dress and redingote, pelisse, spencer jacket for going out. Man's costumes were frock coat, tail coat, shirts, vest and bottoms were breeches, pantaloons and trousers.

In this literature, Harriet's naive and immature image was shown in the name of 'pretty'. Elegant and graceful way of talking and attitude was expressed in the 'beauty' of Emma. The costume is symbolically expressing the character's personality ; white is for Emma's intelligent and elegant image, pastor Elton's black suit symbolized his profession and ambitions for success.

The analysis of the costumes from the movie 「Emma」 is following ; women wore empire dress and outer garment, redingote and spencer jacket. The fabrics were muslin, gauze, satin, lace and velvet. Men's costume were frock coat, tail coat with the shirts, vest, and pantaloons. The fabric was brown, black and dark color of wool.

With an analysis of the movie 「Emma」, I would like to present '99 S/S collection, targeted for 21-25 aged woman by use of Emma's elegant and Harriet's pretty image as a main subject. As a second subject, I have chosen neo romantic memory, sophisticate feminine and pretty Harriet.

I. 서론

문화인류학자 마셜 맥루언이 구텐베르크식 활자문화의 종말을 선언하고 영상매체시대의 도래를 선언한¹⁾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영상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다양한 영상매체중에서 영화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 영화의상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기말에 들어서 패션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복고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복고풍의 유행과 함께 많

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에 나타난 복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한 디자인을 기획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A Matchmaker Films이 1996년에 제작한 영화 「Emma」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인 오스틴(1775-1817)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Emma」는 신고전주의 시대의 복식과 심플리시티, 복고지향적이고 자연미를 추구하는 최근 패션의 미의식과 연관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택하였다. 특히 소설 「Emma」는 영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가는 인

를 묘사에 신고전주의 복식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오스틴의 작품과 복식을 연관시켜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영화의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작품을 분석하고 그 상징성과 복식을 고찰한 연구²⁾들이 있었으나 복식디자인의 이미지까지 취급하지는 않았으며 더우기 지금까지 「Emma」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적 측면에서 다룬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인 오스틴의 「Emma」를 문학작품과 영화를 통해 복식과 그 상징성을 살펴 보고 주인공 엠마와 해리엇의 이미지를 주제로 하여 21-25세 여성을 타겟으로 한 '99 S/S의 디자인을 네오 로맨틱 메모리, 소피스티케이티 페미니즘과 프리티 해리엇을 부제(sub theme)로 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문학작품을 취급한 영화의상을 먼저 살펴보고 이 의상들에 새로운 감각과 상징성을 부가하여 현대의 시대 상황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개발될 수 있는지를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영화 「Emma」의 배경

1. 문학적 배경과 제인 오스틴의 작품세계

제인 오스틴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1810년대로 영문학사에서는 낭만주의시대였다. 그러나 오스틴은 신고전주의를 자신의 삶의 신조로 삼고 사회생활 혹은 가정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영문학에서 신고전주의 시대의 문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고전주의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썼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고전주의의 원리는 이성을 존중하며 형식의 균제와 진술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성이나 사려분별과 같이 고전주의가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치들이 문학이나 예술 뿐만 아니라 종교나 개인의 행실에 있어서도 미덕의 기준이 되었다.

오스틴이 활동하던 시대의 중요한 문학형식은 풍자문학이었으며 이것은 바로 시대사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풍자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녀의 작품도 여성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그 관습에 묻혀 있는 여성들의 인생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제인 오스틴은 영문학사에서 볼 때 셰익스피어와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소설 「Emma」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해당하는 그녀의 대표작이었다.

오스틴이 살았던 시기는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전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에는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으며 일상적인 삶을 사실

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작품은 너무 시아가 좁고 피상적인 일만을 다루었다고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영국사회의 단면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 당시의 결혼관과 가정생활 등의 중요한 사회변화를 알 수 있다.

오스틴 작품의 매력은 각자 독특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등장인물에 있는데 특히 소설 「Emma」의 주인공 엠마는 작가 자신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들 것 같지 않고 ("I am going to take a heroine whom no one but myself will much like.")³⁾ 이야기 했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에 꼭 드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또한 오스틴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여성으로 오스틴은 여성의 관점에서 가족과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며 여주인공의 개성, 요구 및 희망 사항과 이것들을 제한하려는 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드라마틱하게 제시하였다⁴⁾.

오스틴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아 인식(self-knowledge)으로 작품속의 여주인공들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오만, 허영심 그리고 편견 따위를 발견하고 이를 각성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오스틴의 작품에서는 재정적, 사회계급적 측면에서의 결혼을 특히 중요시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만족한 결혼을 하는 것을 최대의 과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오스틴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사회 통념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으며 당시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반기를 들었다.

2. 복식사적 배경

1816년에 출판된 제인 오스틴의 소설 「Emma」의 배경은 1814년에서 1815년으로 추정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1810년대 영국의 복식을 간략하게 남녀 의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 여성 복식

이 시대의 여성 복식은 신고전주의 시대로 즉 앰파이어스타일 시대였다. 여성 복식은 고전적인 실루엣을 모방하였으며 수직적 라인에 고딕적인 장식의 트리밍이 증가하였다⁵⁾. 앰파이어 드레스는 발목까지 오는 길이로 트레인이 없어졌으며 1812년 이후에는 이브닝 드레스에 있던 트레인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⁶⁾. 그리고 데이 드레스의 경우에는 패셔너블한 그리션 밴드(Grecian bend)⁷⁾를 표현하기 위해 스커트의 윗부분에 가능한 높게 리본을 묶었다. 소재는 모슬린, 도

트 무늬의 캄브릭, 한냉사, 새틴, 벨벳, 라메, 크레이프와 금색 브뤼셀 레이스 등이 있었으며 스트라이프와 꽃무늬가 애용되었다.

엠파이어 드레스 위에 입은 겉옷은 르댕고트(redingote), 펠리스(pelisse), 스펜서(spencer) 그리고 맨틀과(mantle)와 솔(shawl)이 있었다. 방한용인 르댕고트는 싱글 여밈으로 손등을 덮는 긴 소매가 달렸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실용적인 일상복이었다. 펠리스는 외출용 털코트로 어깨 부분은 퍼프 소매였으며 하이 칼라에 두세개의 케이프가 있었고 모피로 안감을 붙였는데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실크나 가벼운 모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⁸⁾. 스펜서는 짧은 재킷형의 상의로 스펜서경(1758-1834)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승마복의 꼬리가 잘리게 되어 만들어졌다고 한다⁹⁾. 스펜서는 당시에 매우 인기있는 아이템으로 대개는 손목까지 꼭 맞는 소매가 달려 있었고 넥라인부터 옷의 끝단까지 단추가 달려 있었다. 맨틀은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였으며 어떤 것은 작은 후드가 달린 것도 있었는데 주로 추운날이나 여행할 때 입었다¹⁰⁾. 고대 그리스의 히마티온이나 로마의 팔라를 모방한 솔은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두르기 시작하였는데 점차 장식성이 강조되었으며 1815년 이후에는 페이즐리 무늬가 유행하였다.

모자들은 크라운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집의 출입문을 천장 높이로 높여야 한다¹¹⁾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며 포크 본넷(poke bonnet)¹²⁾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헤어 스타일은 그리스 스타일, 고대 로마 스타일, 아 라 마도나(a la Madonna)형¹³⁾이 있었다. 그리스 스타일은 이마 주위에 작은 컬을 만들고 나머지는 정수리에서 묶어 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스타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앞가리마를 타고 컬을 흘트리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때로 아 라 티투스(a la Titus)¹⁴⁾라고 불렀다.

액세서리는 장갑, 손수건, 부채, 파라솔 등이 있었다. 장갑은 주요한 아이템으로 간주되었고 요크 텐(york tan)¹⁵⁾은 가장 인기 있었다. 리디쿨(ridicule)¹⁶⁾은 레티쿨(reticule)이라고도 했는데 통글거나 마름모꼴이 유행하였다. 보석은 사용하는 양이 많이 줄었으며 금으로 만든 펜던트 귀걸이와 목걸이 그리고 진주 귀걸이가 있었다.

2) 남성 복식

이 시기에 남성복은 현대 남성복과 같은 슈트 형식이지만 상의는 지금과 달리 테일 코트, 모닝 코트, 프록 코트 등을 입었다. 테일 코트는 앞이 허리에서 커트되고 뒷길의 스커트 꼬리 부분이 더욱 길어졌다. 19세기의 독특한 프록 코트는



〈그림 1〉 하이드 파크의 풍경(1816)
「The Picture Histories Series : English Costume」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예복이나 평상복으로 입었다. 코트의 옷감은 감색, 갈색, 녹색, 검정색 등의 모직물이 주로 이용되었다. 베스트는 칼라가 있었으며 주로 줄무늬가 많았고 셔츠는 칼라의 폭이 매우 넓었다. 외투는 일반적으로 많이 입었던 르댕고트와 그레이트 코트(great coat)가 있었다. 그레이트 코트는 서너개의 케이프와 앞여밈에 탭이 달려 있었고 칼라나 라펠, 커프스에 모피를 댄 것도 있었다.

바지는 형태상으로 나누어 보면 브리치스(breeches), 판탈룬(pantaloon) 그리고 트라우저(trousers)가 있었다. 구귀족이 입은 짧은 바지인 브리치스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긴 바지인 판탈룬은 스트랩 판탈룬과 웰링턴 판탈룬(wellington pantaloons)¹⁷⁾ 그리고 혼합형인 판탈룬 트라우저가 있었다. 트라우저는 스트레이트 트라우저와 허리밴드에 주름을 잡은 넉넉한 코색(cossack)이 있었다¹⁸⁾.

헤어 스타일은 길이가 짧아지고 자연스러워졌으며 모자는 크라운이 높은 검은색과 회색 등을 주로 썼고 정장에는 주로 비버 햇이나 비코른(bicorn)을 썼다. 그리고 헤시안 부츠(hessian boots), 웰링턴 부츠(wellington boots), 조키 부츠(jockey boots)를 주로 신었으며¹⁹⁾ 각반도 유행하였다.

III. 「Emma」의 작품과 의상 분석

1. 「Emma」의 작품분석

1) 작품 개요

「Emma」는 19세기 초 런던 근교를 배경으로 일상생활 속에 표현되는 인간성을 깊이 관찰하고 삶에 대한 작가의 특별한 관심을 기술한 작품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시골의 젊은 여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남자들 사이의 관계를 소재로 하고 있다. 주인공 엠마(Emma)는 가정교사 테일러양

(Miss Taylor)이 웨스턴씨(Mr. Western)와 결혼을 하자 남녀를 맺어주는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고아인 해리엣(Harriet)을 고구목사인 엘튼(Mr. Elton)과 맺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엠마의 친절을 오해한 엘튼이 엠마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리엣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엠마는 웨스턴의 아들인 프랭크 처칠(Frank Churchill)을 해리엣의 짝으로 생각하나 알고 보니 그도 비밀리에 약혼한 상태였다. 무도회가 있는 후에 해리엣은 나이틀리(Mr. Knightley)를 사모하고 있음을 엠마에게 고백하고 그 말을 들은 엠마는 자신이 나이틀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그와 결혼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소설 「Emma」는 주인공 엠마의 자아 인식 과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2) 문학작품 「Emma」에 나타난 미의식

미의식(aesthetic consciousness)이란 「美學辭典」에 의하면 미를 체험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의 총칭으로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미적 태도의 의식과정을 그리고 철학적 관점에서는 미적가치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의미하거나 미적 태도 일반에 관한 정신활동 등을 의미한다²⁰⁾. 따라서 미의식이란 잠재된 무의식과 자각되는 의식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미에 대한 태도, 마음의 상태, 의지등을 포함하여 미의식의 내포가 확대된다.

소설 「Emma」에서 등장인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말에는 'pretty', 'elegant', 'beautiful', 'graceful' 등의 미적 범주가 있다. 미적 범주란 많은 유행의 도식 속에서 하나의 유풍(流風)으로서 그 시대를 넘어 정착하는 것이며 또한 미의식 속에 정착된 복식미의 범주로 시크, 댄디, 이기 그리고 멋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²¹⁾ 소설 「Emma」의 배경이 되는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전시대의 장식적인 기교미에서 벗어나 자연미와 심플리시티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음의 상태, 행동 등의 내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미의식의 연구로 「Emma」에 나타난 표현 중에서 'pretty' 한 해리엣과 'elegant' 한 엠마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소설 「Emma」의 묘사에서 'pretty'는 순진하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해리엣을 표현하고 있다. 'beautiful' 한 엠마는 'pretty'와 비교해볼 때 보다 지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beautiful'은 'elegant'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²²⁾. 소설에 표현된 'elegant'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나 옷차림 뿐만 아니라 우아한 몸가짐 그리고 태도나 말씨에서 느낄 수 있는 내면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예는 엠마가 친구 제인을 묘사하는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graceful'은 'elegant'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²³⁾.

'pretty'는 사전에 의하면 '예쁜', '귀여운', '재미있는' 등의 의미로 'beautiful'에 비해 작은 것에 쓰인다²⁴⁾. 이에 비해 'elegant'는 '겉모습이나 태도가 우아함'을 나타내며 인품이 품위가 있거나 취미, 습관이 우아하고 세련됨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또한 石山彰는 'elegant'란 사람의 거동이나 취미 또는 옷자체나 옷을 입은 모습이 고상하고 우아하며 품위가 있다는 뜻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특히 복식에 있어서 'elegant'는 복식의 모든 부분적인 요소들이 극히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여성미를 나타내거나 의복을 입는 자체에 최선을 다하여 억지의 과장이 없이 자연스러운 표현중에 기품이 스며 나오는 우아한 분위기를 말하기도 한다²⁵⁾고 지적했다.

이외에 소설 「Emma」에서는 주인공 엠마의 허영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엘튼 부인의 속물성에서 irony를 찾아볼 수 있었다.

2 영화 「Emma」의 의상

영화 「Emma」의 남녀 복식은 1810년대 영국 신고전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복식과 유사하다. 영화 「Emma」의 엠마, 해리엣 등의 여성 복식을 보면 하이웨이스트의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 위에 솔을 두르거나 스펀서 재킷을 입었으며 포크 본넷을 쓰고 기타 신변품으로 긴 장갑과 진주 목걸이, 리디컬 등이 있었다. 그리고 나이틀리, 웨스턴씨 등의 남자 복식을 보면 상의는 셔츠와 조끼를 입고 테일 코트나 프록 코트를 입었으며 하의는 판탈론을 입었고 오페라 햇이나 밀짚 모자를 썼으며 부츠를 신었다.

소설 「Emma」에 표현된 복식과 영화 「Emma」에 나타난 복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에 나타난 웨딩드레스는 장식을 거의 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엠파이어 스타일로 특히 소설에서 엘튼 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새틴과 베일을 적게 사용하고²⁶⁾ 가슴 부분과 소매 부분만을 레이스로 비치게 처리하였다.

The wedding was very much like other weddings, where the parties have no taste for finery or parade; and Mrs. Elton, from the particulars detailed by her husband, thought it all extremely shabby, and very inferior to her own.—*Very little white satin, very few lace veils; a most pitiful business!*—Selina would stare when she heard of it'

소설에 나타난 흰색 드레스와 모슬린 소재는 영화에서 주로 주인공 엠마가 입고 있는데 그녀의 흰색 모슬린 드레스는 작은 프릴이나 러플을 이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리

고 엘튼 목사의 복식은 소설에 나타난 검정색의 르덴고트와 판탈룬으로 그가 성직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복식의 소재는 명확히 분석할 수 없었으나 하얀 모슬린, 한방사와 새틴 그리고 라메, 벨벳등이 사용되었으며 무늬는 무지와 스트라이프가 많았고 작은 꽃무늬, 다양한 체크 무늬와 도트무늬도 있었다. 남성 복식의 소재는 주로 어두운 색의 모직물이 쓰였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색채는 그린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상에는 흰색과 페일톤의 핑크, 그린, 옐로, 블루 등이 쓰였다.

영화에 나타난 액세서리는 소설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진주 목걸이와 장갑, 리디쿨, 부츠, 보넷 등이 있었으며 영화에 나타난 복식은 소설에서의 복식 묘사와 비교해 볼 때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영화에서 시대극이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시대 고증을 치밀하게 해서 영화의상을 제작하는 것이 추세이므로 영화 「Emma」의 의상을 담당한 루스 마이어스(Ruth Myers)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작가가 문학작품에서 시대의상을 잘 고증한 1810년대 영국의 신고전주의 남녀 복식과 여러가지 소품을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1810년대 당시의 복식과 영화 「Emma」의상의 차이점은 1800년부터 고전적인 드레스와 함께 입기 시작하였던²⁷⁾ 튜닉 드레스에서 나타났다. 엠마의 튜닉 드레스 즉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는 당시의 복식보다 암홀이 많이 커팅되어 노출된 현대적이고 대담한 감각이 돋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1812년 이후에 사라진 트레인이 반 정도 달린 드레스와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금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와 귀걸이도 볼 수 있었다.

3. 「Emma」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

엠마의 웨딩 드레스에 관한 엘튼 부인의 묘사는 엠마가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복식을 좋아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²⁸⁾ 있는데 이와 같이 심플리시티를 추구했던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能澤慧子도 여성복에 있어서 심플한 댄디즘의 미의식이 19세기 초 제인 오스틴의 작품 「Emma」에 나타나 있다고 지적²⁹⁾하였다.

영화에서 흰색 드레스는 엠마의 지적이고 고상한 이미지를 돋보이도록 하며 또한 그녀의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흰색을 선호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부를 갖추지 못하면 흰색옷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³⁰⁾.

<그림 2>

심플함을 추구하는 엠마에 비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매



<그림 2> 엠마의 흰색 드레스(오른쪽)와 해리엇의 체크 무늬 드레스(왼쪽)

우 중요시하는 엘튼 부인은 원작에서와 같이 영화에서도 장식적인 드레스와 목걸이로 치장을 하여 사치스럽고 잘난체 하는 그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에서는 엠마의 흰색이나 페일톤의 드레스와는 달리 진한 빨강색이나 녹색의 벨벳 드레스로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그녀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Mrs. Elton, as elegant as *lace* and *pearls* could make her, he looked in silence—wanting only to observe enough for Isabella’s information—but Miss Fairfax was an old acquaintance and a quiet girl, and he could talk to her.

I must put on a few ornaments now, because it is expected of me. A bride, you know, must appear like a bride. I have some notion of putting such a trimming as this to my silver poplin. Do you think it will look well?

나이틀리와 함께 활을 쏘는 장면에서 엠마의 페일 핑크색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는 엠마와 나이틀리의 관계가 앞으로 발전할 것을 암시하는 복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엘튼 목사의 검은색 복식은 그의 직업과 출세의 야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구 기독교적 색채감정에 의하면 검은색은 성직자의 금욕을 상징하고 있는데³¹⁾ 「Emma」에서 검은색은 그의 직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의 야심도 간접적이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1830년에 쓰여진 스타달의 소설 「적과 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적(赤)은 군복을, 흑(黑)은 성직자복을 상징하고 있으며 당시에 빈민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인이나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다³²⁾고 한다.

이와 같이 「Emma」에 나타난 색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영화의 전개에 따라 각 장면의 분위기와 등장인물의 묘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화에서는 원작에서의 허영심 많고 편견으로 가득찬 주인공 엠마의 이미지³³⁾를 흰색과 페일톤의 드레스를 통해 지적이고 고상한 이미지로 변화를 주었다.

IV. 영화 「Emma」이미지의 디자인 기획

1. 주제

세기말에 이르러 패션 트렌드는 복고지향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향하에서 현대패션은 과거의 모든 양식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영화 「Emma」의 의상은 신고전주의적 관점에서 과잉장식을 지양하고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여성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디자인 기획의 주제는 「Emma & Harriet」으로 하고 네오 로맨틱 메모리(Neo romantic memory), 소피스티케이트 페미닌(Sophisticate feminine), 프리티 해리엣(Pretty Harriet)을 주제로 하여 영화에 나타난 고전적인 미를 현대감각에 맞도록 세가지 이미지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2 이미지 맵(Image Map) 및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본 디자인의 타겟(target)은 독특한 개성을 연출하는 21세에서 25세까지의 학생과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저녁 모임을 위한 의복으로 디자인 하였다. 색채는 영화 「Emma」에 나타난 페일 핑크, 흰색, 검은색 등을 중심으로 하여 '99 S/S를 위한 색상을 가미하였다.

네오 로맨틱 메모리는 A라인 원피스 드레스로 영화에서 엠마의 핑크색 드레스와 같은 색상을 선택하여 여성스러우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소피스티케이트 페미닌은 엠파이어 드레스형의 원피스로 엠마가 주로 입었던 흰색과 남성복에 나타난 브라운 그리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레이를 사용하여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의 도시여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프리티 해리엣은 무릎라인의 원피스와 벨 보텀즈로 해리엣의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원피스는 영화의 배경인 그린색과 '99년 S/S를 위한 어센틱 그레이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엘튼 목사가 주로 입었던 검은색을 벨 보텀즈의 색으로 사용하여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V. 결론

이상으로 제인 오스틴의 소설 「Emma」의 문학적 배경과 복식사적 배경을 살펴 보고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과 상징성 그리고 그 미적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영화 「Emma」의 의상을 분석하여 도출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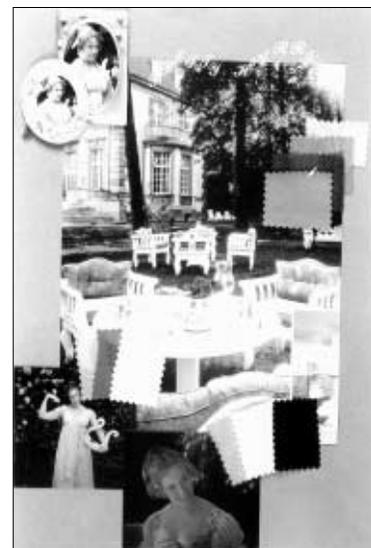
「Emma」의 배경이 된 1810년대 영국은 신고전주의 시대로 복식 뿐만 아니라 일반 예술에 있어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풍의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였다. 1810년대 영국의 복식을 보면 여성복은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와 그 위에 르



① NEO ROMANTIC MEMORY



② SOPHISTICATE FEMININE



③ PRETTY HARRI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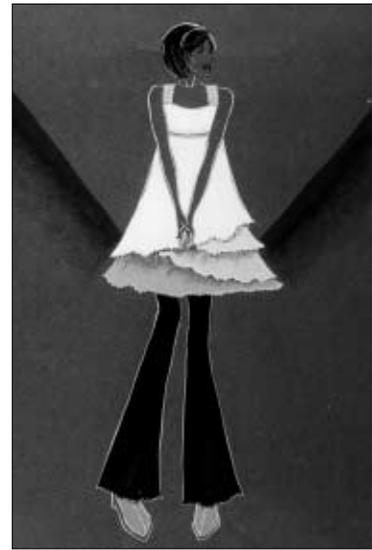
〈그림 3〉 이미지 맵



① NEO ROMANTIC MEMORY



② SOPHISTICATE FEMINE



③ PRETTY HARRIET

〈그림 4〉 창작 일러스트

뎅고트, 스펜서 등을 입었으며 남성복은 테일 코트나 프록 코트속에 셔츠와 베스트 그리고 하의는 브리치스 혹은 팬탈 룬이나 트라우저를 입었다.

문학작품 「Emma」에서 주인공 엠마를 표현하는 미적 표현으로 'pretty', 'beautiful', 'elegant', 'graceful' 등이 있었고 'pretty'는 해리엣의 'pretty'로 표현되어 순진하고 아직 성숙 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엠마의 미로 표현된 'elegant'는 복식과 외모, 태도까지 포함하는 미적 범주로 우아하고 지적인 미를 나타내고 있다.

문학작품과 영화 「Emma」에서 흰색은 엠마의 지적이며 고상한 이미지를, 옐튼 부인은 진한 빨강색과 녹색 벨벳 드레스로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그녀의 성격을, 검은색은 옐튼 목사의 직업과 간접적으로 그의 출세욕을 상징하고 있다.

영화 「Emma」에 등장하는 인물의 복식을 살펴 보면, 먼저 엠마와 해리엣 등의 여성 복식은 직선적인 실루엣의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 위에 튜닉 드레스를 겹쳐 입기도 하였으며 외출용 겉옷으로 르뎅고트, 스펜서 그리고 슌이 있었다. 여성의 모자는 다양한 본넛이 있었으며 장신구는 금이나 진주로 만든 목걸이 등이 있었다. 나이틀리와 웨스턴씨 등의 남성 복식은 테일 코트, 셔츠와 베스트 그리고 팬탈룬을 입었고 신발은 부츠를 주로 신었다. 영화에 나타난 색상과 소재를 보면, 먼저 영화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색채는 녹색이었으며 여성복은 흰색이나 페일톤의 색상에 한방사, 새틴, 벨벳, 라메와 레이스 등의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고 남성복은 갈색이나 네이비 블루, 검은색 등 어두운색의 모직물로 만들어졌다. 영화 「Emma」는 비교적 정확한 고증으로 1810년대 영

국의 복식을 재현하고 있는데 엠파이어 드레스 위에 겹쳐 입은 튜닉 드레스의 대담하게 파인 애플이나 금으로 만든 액세서리는 현대적인 미가 가미되어 나타났다.

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주인공 엠마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소설에 나타난 엠마의 허영심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미지는 영화에서 부드러운 실루엣과 밝은 컬러의 의상으로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지적이고 엘레강트한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창작 의상 디자인은 주인공 엠마와 해리엣의 이미지를 주제로 하고 부제를 네오 로맨틱 메모리, 소피스티케이티드 페미닌 그리고 프리티 해리엣으로 하여 이미지 맵과 디자인 일러스트, 작업지시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복고풍의 로맨틱시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심플한 엠파이어 실루엣과 영화에 나타난 화이트, 핑크, 블랙 컬러 등을 중심으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참고문헌

1. Herbert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man, Cambridge, Mit press, Mass, 1994, p.12
2. 고혜숙, 영화 「사의 찬미」의 복식과 그 의미 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3. Leroy W. Smith, Jane Austen and the Drama of Woman, Macmillan Press, London, 1983, p.28.
4. 김경진, 제인 오스틴,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p.49.
5.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 Faber and Faber Ltd, London, 1966, p.371.
6. 앞 글, p.371.
 7.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몸을 조금 앞으로 구부린 걸음 걸이.
 8.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65, p.487.
 9. Jean Starobinski, Revolution in Fashion : European Clothing 1715-1815, Abbeville Press, New York, 1989, p.151.
 10. Nancy Bradfield, Historical Costumes of England, Harrap Ltd, London, 1985, p.133.
 11. C. Willet & Phillis Cunningham, 1966, p.378.
 12. 19세기에 유행했던 창의 앞으로 나온 여성용 모자.
 13. 1810년에서 1820년에 유행하던 앞가리마를 탄 헤어스타일.
 14. 머리를 짧게 깎고 컬을 흘트리지게 하는 헤어스타일.
 15. 1810년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짧은 장갑의 명칭.
 16. 슈미즈 가운이 너무 얇고 부드러워서 옷에 포켓을 부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조그만 핸드백.
 17. 바지 부리의 옆선에 슬릿이 있고 작은 단추가 달린 팬탈론의 일종.
 18. 앞 글, p.88.
 19. 앞 글, p.456.
 20. 조규화, 한국패션에 나타난 미의식,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2, 1997, pp.1-19.
 21. 조규화, 복식미학, 1996, p.333.
 22. Jane Austen, Emma, W. W. Norton & Company, London, 1972, p.24.
 23. 앞 글, p.111.
 24.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Clarendon Press, Oxford, 1995, p.1083.
 25. 이귀영, 마담 보바리에 나타난 프랑스 여성 복식의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81.
 26. Jane Austen, Emma, 1972, p.335.
 27.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Crown Publishers Inc, New York, 1976, p.824.
 28. Jane Austen, Emma, p.335.
 29. 能澤慧子, モードの社會史: 西洋近代服の誕生と展開, 有斐閣選書, 東京, 1991, p.189.
 30. 케이트 밀렛, 조정호(역), 정우사, 1995, p.25.
 31. 고혜숙, 영화 「사의 찬미」의 복식과 그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32.
 32. Stendhal, 이해윤(역), 적과 흑, 홍신문화사, 1992, p.541.
 33. 제인 오스틴, 최정선(역), 움직이는 책, 1996, p.499.